

홈 > 뉴스 > 서울자치구 > 성동구

성동구, '에너지 시민 네트워크 협의체' 협약 체결

환경단체·공동주택·마을공동체로 구성..전력위기 대처 공동 활동

2015년 08월 17일 (월) 10:29:31

김광호 기자 ✉ news@hg-times.com

[한강타임즈 김광호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지난 13일 원전하나줄이기 2단계 정책방향을 함께 공유하고 지역의 에너지 의제와 협력 방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역량 있는 단체 및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에너지 시민 네트워크인 '성동환경을 지키는 사람들'을 구성하고 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앞서 지난 3월 협약을 체결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에너지 나눔을 위한 가스업체 네트워크'에 이은 성동구의 두 번째 에너지 시민 네트워크 협의체다.

'성동 환경을 지키는 사람들'은 성동구와 금호대우아파트, 대성유니드아파트, 금호삼성래미안아파트, (사)자연보호 성동구협의회, 성동구 주부환경연합회, 마을공동체 행복공감이 참여한다.



협의체는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 사업 발굴 및 추진 ▲에너지의 절약과 효율적 사용을

위한 실천 ▲‘CO2 1인 1톤 줄이기’ 캠페인 홍보 ▲에너지 사용 제한 합동지도 등 전력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정기적인 공동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이 같은 활동을 통해 서울이 지향하는 에너지 자립·나눔·참여의 가치 구현과 ‘저탄소 에너지 고효율 도시, 성동구’ 실현을 위한 민·관 상호 협력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원오 구청장은 “‘성동환경을 지키는 사람들’은 성동구가 저탄소 에너지 고효율 도시로 거듭나는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많은 주민들이 에너지 절약에 적극 동참해 미래의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광호 기자 news@hg-times.com

<저작권자 © '내 손안에 종합뉴스' 한강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